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서울 마포구 창전동 6-264 / hrs3388@gmail.com / 02)365-5412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1/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날짜: 2017년 6월 9(금)

제목: 6월항쟁 30주년 맞이, 학생인권 보장 피켓팅

문의: 배경내

[취 재 요 칭]

“30년 지연된 학생인권 보장하라!

30년 지연된 청소년참정권 보장하라!”

6.10항쟁 30주년 맞이,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피켓팅 개최

■ 6월 10일(토) 오전 9시~10시, 서울광장

■ 6월 10일(토) 오후 1시반~2시, 정독도서관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의 실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교육인권청소년단체들의 연대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아래 너머본부)입니다. 저희 너머본부는 ▲학생인권법 제정운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불량학칙 공모전 ▲학교밖 청소년 인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 - 교육청소년인권 기본영역> 시험지를 발송하여 대선후보들의 학생·청소년 인권 감수성을 점검하고 학생·청소년 인권 정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 6월 민주항쟁에서는 “대통령에서 반장까지 직선제로!”라는 요구처럼, 학생들의 사회·학교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공장 안에서의 두발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학생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선 체벌, 두발복장단속, 교사의 혐오발언과 성희롱, 학생 통신권 제한, 학생 의견 묵살, 학생회 선거 개입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난 촛불에서 ‘촛불세대’로 불릴 정도로 청소년들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장에선 시민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선 ‘무권리 상태의 학생’으로, 참정권 영역에서는 성원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非)시민’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 ‘너머본부’가 보낸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에 대한 답변서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 의사를 표한 바 있으며, 또 다른 교육연대체인 ‘사회적교육위원회’가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도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반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너머본부’는 6월항쟁 공식 기념식 현장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학생과의 대화가 열리는 현장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피켓팅 문구>

87년 노동자들의 외침, 두발자유!
2017년 학생들의 외침, 두발자유!

87년 시민들의 외침, 직선제 개헌
2017년 학생들의 외침, 참정권 보장

광장에선 촛불시민
학교에선 권리없는 학생

30년 지연된 학생인권 보장하라
30년 지연된 청소년참정권 보장하라

87년의 외침 "대통령부터 반장까지 직선제로!"

2017년의 외침 "청와대부터 교실까지 민주주의를!"

체벌, 성폭력, 모욕, 혐오 없는 학교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학생인권법 임기 초반 제정"
문대통령님, 잊지 않으셨죠?

서울학생인권조례 준수, 두발규제 전면 금지부터!
조희연 교육감님, 약속하시는 거죠?

- 민주주의의 기본인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